광양시 생활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추진

장기 방치 도시미관 저해 쓰레기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집중처리
휴대전화 촬영 신고 포상금제 확대

광양이 생활폐기물 집중처리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광양시는 무단투기돼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폐기물, 수거 거부 등으로 적체된 생활폐기물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생활폐기물을 집중 처리 를 통해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실행기간은 오는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주요사항은 공한지, 나대지 등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미사용 또는 혼합 배출로 인한 수거 거부 쓰레기의 처리방법과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군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무단투기된 방치 폐기물, 수거 거부 쓰레기 등을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한지 등 방치된 생활폐기물은 공한지 청소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 폐기물 종류별로 분리하고 수거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대지 상태의 개인 사유지에 방치된 폐기물은 토지소유자 파악 후 청결 유지 명령을 해 개인 사유지는 소유자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단투기가 빈번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아 투기자 적발이 어려운 곳은 시민이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신고, 차량블랙박스 신고 등 제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제 홍보를 확대한다.

김재희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는 시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 혼합 배출 금지,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등 선진 시민의식 함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녹차 전문가 모임 '보성차문화연구회' 출범

보성의 차 문화·산업 조사·연구

녹차 전문가가 주축이 된 '보성차문화연구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사진〉

보성차문화연구회는 목포대학교 전·현직 교수진과 목포대 국제차문화과학 석·박사 통합과정 학우, 보성지역의 차 전문가 등이 모여 결성한 연구회다.

보성 차문화를 주제로 학술회의·연구용역·학술교류·저서 출판 등을 통해 보성의 차 문화와 차 산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창립총회는 지난 21일 보성군 봇재(봇재홀)에서 열렸으며 김철우 보성군수와 정헌식 경상대 한국차문화연구원장, 신정호 목포대 교수평의회 의장, 박근형 전남대 명예교수, 서상균 보성차생산자조합장, 이정우 보성차문화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세월이 지워버린 흔적을 찾고 연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보성차의 지난 천년을 찾고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중심에 보성차문화연구회가 함께 해 큰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 별량 들녘 '논 아트' 눈길…올해 주제는 정원박람회

주민자치회 지난 5월 심은
유색벼 드러내며 볼거리 제공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들녘에 여름날 초록을 배경으로 새겨진 한 폭의 그림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별량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5월 주민과 학생, 소비자단체 등 200여 명이 함께 모내기에 참여해 조성한 논 아트가 유색벼 고유의 색을 드러내며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2023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 논아트는 내년에 있을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2023정원박람회의 주제어 '정원에 삽니다'와 함께 세계적인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을 논에 그렸다. 여름에는 초록들녘, 가을에는 황금들녘을 배경으로 자연이 채색하는 들판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다.

순천 별량면 주민자치회가 '2023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지난 5월 봉림리 들녘에 논 아트를 조성했다.

현영수 별량면 주민자치회장은 "그동안 논아트에서 선보인 생태, 환경, 농업 관련 주제에서 벗어나 색다른 이미지를 선보여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며 "논아트가 별량면을 대표하는 소중한 관광자원이 된 만큼,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로 많은 분들이 별량면을 찾고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별량면 주민자치회는 2018년부터 다양한 색상의 유색벼를 활용해 논에 그림을 그리는 농업생태공원 논아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경관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여수시,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유치

내년 4월 진남경기장 일원서
30개국 선수 등 800여명 참가

여수시가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최근 광양시 등 개최 희망도시에 대한 현장평가와 서류심사를 거쳐 이사회를 열고 여수시를 개최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2년 코리아 오픈대회 이후 21년 만에 여수에서 열리는 메이저급 배드민턴 국제대회로, 내년 4월 진남실내체육관 등 진남경기장 일원에서 6일간 열리게 된다.

전 세계 30개국 500여명의 최정상급 선수와 운영요원 300명 등 총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을 통해 국내와 해외 20개국에 중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2023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유치로 2만여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예정이다"면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재해 없는 구례 만들기' 총력전

재해예방 종합계획 이행 점검

구례군이 재해 없는 구례 만들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례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구례군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이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대 관심사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이행 점검 등 꼼꼼한 현안 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중대재해예방 계획에 의한 자체 점검으로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현지 점검 대상 사업장 방문계획 수립, 하계 전지훈련 유치 지원·홍보, 폭염 대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 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올해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특별 강의를 실시했다. 이후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종사자와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평가해 보완 개선하는 안전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상·하반기 각 1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결과에 따른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환류 조치할 계획이다.

소관부서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후 개선 절차를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곡성군, 한국전·월남전 참전 배우자에 월 5만원 유족수당

곡성군이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5만원의 배우자 유족 수당을 6월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전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 지급도 중단됐다.

곡성군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올해 4월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5월부터 유족 수당을 지급해 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이다. 단,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배우자가 참전 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